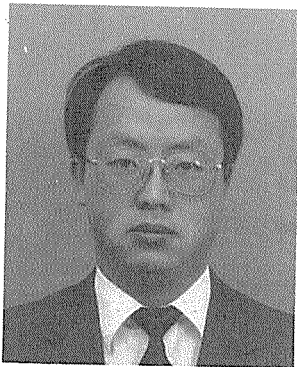


國際收支 赤字 그 原因과 對策



韓國 貿易 協會
日刊 貿易 經濟 部
宋 權 鎬

I. 序 文

貿易收支 赤字規模가 이미 1百億달러를 넘어섰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輸出은 우리 정부가 예측한 대로 쑥쑥 늘어나지 않는 반면 輸入은 계속 확대돼 貿易赤字幅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모두 우리를 부담케하는 소리들이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貿易收支 黑字規模가 커져 外國의 通商 壓力을 받고 輸出이 더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 처럼 여겨지던 때가 과연 진짜 있었는지 내 자신의 기억이 의심스럽기 조차하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經濟現象을 경제현상 있는 그대로 보려하지 않는 사회 일부세력들의 태도인 것 같다.

貿易收支 赤字規模 擴大, 內需 景氣過熱등은 모두 경제현상들이다. 經濟現象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한 후에야만 經濟論理에 입각해 이에 알맞는 처방도 나올 수 있는 법이다.

經濟現象을 政治的인 논리로 풀어나가려 할 경우 우리 經濟는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 밖에 없다.

政治인 논리로 經濟問題를 풀려는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韓國銀行에서 무조건 돈을 찍어내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정도에 비례해 돈다발을 한아름씩 안겨줘 국민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이룩하려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일의 성과를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 다같이 잘살아 보자는 共產主義의 헛된 論理와 다를 바 없다.

經濟問題를 政治인 論理로 풀려는 사람들이 의도하는 대로라면 사람들은 가난한 정도에 따라 돈을 받게 될 터이니 아무도 일을 열심히 하려 들지 않을 것이며 될 수 있으면 자기 자신이 이 社會에서 얼마나 苦生하고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지 說明하는데 注力하려 들 것이다. 이와함께 누구나 自己能力에 상관없이 消費支出을 늘리게 됨으로써 결국 우리나라는 南美 여러나라가 부럽지 않은 인플레이왕국이 돼 버리고 말 것이다.

현재 각 신문에는 相反된 論理가 하루를 멀다하고 1면 톱을 장식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 經濟의 暮老現象을 改善하고 貿易收支 赤字規模를 축소키 위해서는 通貨緊縮, 建設景氣 抑制 政策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등장하는가 하면 그 다음날에는 企業들이 돈 가뭄에 倒産 일보직전이라면서 돈을 풀어야 한다는 논리를 등장시키고 있다.

또 '建設景氣 抑制 對策 부작용 크다' 라는 시커먼 타이틀로 일부지역 주민들의 建設景氣 抑制 政策에 대해 반발하는 보도가 나온다. 일부 言論들은 자신들이 목청을 높여 주장해왔던 政策들이 실시되는 過程에서 야기되는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責任을 정부에게 떠넘기면서 '죽대없는 정부'라고 몰아부치기 조차 한다.

지난 '89年 12月 株式市場이 침체돼 있을 때 당시 언론들은 '株式市場은 그나라 經濟의 얼굴'이라면서 돈을 풀어서라도 주식시장을 回生시키라고 아우성을 쳤다. 당시 정부 실무자들은 實物經濟의 뒷받침이 없는 인위적인 株式市場 부양책은 부작용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으나 막무가내였다.

이후 정부가 국내 투신사들을 통해 株式市場에 3兆 5千億원의 돈을 풀 결과 어떠했는가? 큰손들에게 비싼가격으로 그들의 주식처분기회를 提供했으며 큰손들은 株式市場에서 회수된 돈을 부동산에 投資, 커

다란 社會混亂을 일으켰다. 당시 株式市場 浮揚論을 일면 톱, 社說을 통해 강조했던 언론자들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判斷 錯誤를 시인하지 않았으며 사과하지도 않았다.

본인이 言論의 변덕성을 이같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經濟現象은 경제논리로 풀어야 하며 經濟論理가 아닌 정치 또는 감정의 논리로 해결하려 들 경우 엄청난 혼란이 뒤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19세기초 英國社會를 극도의 불안으로 몰아넣었던 地代와 穀物價格의 급등에 관한 論爭, 그리고 이결과 의 省察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國際收支 問題의 올바른 해결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초 당시 英國에서는 地代와 穀物價格이 크게 올라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다. 많은 정치가들은 穀物價格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악덕 地主들이 地代를 인위적으로 올렸기 때문이라면서 地主들의 비도덕성을 비난했다.

이에대해 英國의 유명한 古典學派 經濟學者인 데이비드 리카르도(1772~1823)는 정치가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상치되는 논리를 전개했다. 리카르도는 나폴레옹 전쟁의 결과로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지역에서 生産된 값싼 소맥의 수입이 두절됐고 이로인해 穀物價格이 크게 올랐으며 穀物價格 上昇은 土地에 대한 需要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地代를 상승시켰다고 지적했다. 다시말해 地代가 오르기 때문에 곡물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곡물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地代가 오른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리카르도는 소수의 地主계급 옹호를 위해 외국의 값싼 곡물의 輸入을 제한하고 있는 穀物條例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가들은 經濟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地主들의 도덕성 회복을 강조한 반면 리카르도는 地代上昇 原因을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에대한 解決策으로 값싼 외국산 곡물의 輸入을 가로막고 있는 穀物條例의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1846년 영국은 아일랜드 지역의 대기근을 계기로 穀物條例法을 폐지했다. 穀物條例 撤廢에 의해 외국 의 저렴한 소맥이 영국으로 대량유입됐으며 19세기 중반에는 그 가격이 以前價格에 비해 1/3로 하락했

다. 이에 따라 勞動者를 중심으로 한 일반국민들의 생활은 매우 향상된 반면 영국의 농업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신문 컬럼난에 ‘힘들고 고된일 기피하는 풍조’를 慨歎하는 글들이 자주 실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성에 마치 문제가 있어 貿易收支赤字規模가 축소안되고 우리나라가 금방 망할 것처럼 주장하는 글들도 신문에 자주 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經濟現象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않는데서 오는 편견들이다.

‘힘들고 고된일 기피풍조’를 慨歎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시말해 그들 모두 아무런 이해관계없이 그들이 말하는 힘들고 고된일을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회사를 經營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업장에 일손이 달리고 人件費가 급상승해 收支가 맞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고된일 기피풍조’를 慨歎하는 것이었지 勤勞者들의 입장에서 慨歎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勤勞者의 입장에서 볼 때 근로시간 단위당 報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문이 있을 경우 이 부문으로 轉職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더우기 지난해와 금년과 같은 物價高하에서는 그리고 就業機會가 많은 현 상태하에서는 자신의 實質賃金を 지키기 위해서라도 힘든일에 대한 報酬를 더 많이 요구하고 報酬와 待遇가 더 좋은 사회의 타부문으로 옮겨 갈려고 하는 것은 經濟原理上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경영자들의 ‘힘들고 고된일 기피풍조’ 慨歎은 勤勞者들의 시각에서 볼때 ‘타부문에 비해 報酬를 적게 주면서도 힘든일을 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解析될 수도 있다. 그만큼 經濟現象을 객관적으로 보려하지 않는다면 입장에 따라 解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다.

II. 國際收支의 概要

國際收支(Balance of Payments)란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經濟的 去來(실물 및 금융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

계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체류기간이 1년이상인 방문객, 여행자, 상업적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자 및 당해국에 소재를 두는 모든 企業體, 非營利團體 등을 말한다.

國際收支表는 ▲ 經常去來의 결과 수입과 지급의 차를 나타내는 經常收支 ▲ 자본거래의 결과 수지차이를 나타내는 자본수지 ▲ 오차 및 누락 ▲ 經常去來와 資本去來의 결과를 모두 반영하는 綜合收支로 구성돼 있다.

經常收支는 財貨, 用役, 所得 및 移轉去來를 합계한 수지로 경제전체의 대외금융자산 증감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며 통상적인 의미에서 國際收支 黑字라 할 때는 바로 經常收支 黑字를 의미한다. 經常收支는 기술상 貿易收支, 貿易外收支, 移轉收支로 구성되는데 貿易收支는 輸出과 輸入의 차이로서 輸出入 모두 本船引渡價格(FOB)으로 평가된다.

國際收支 基準이 아닌 통관기준으로 貿易收支를 산출해낼 경우 輸入을 FOB 價格에 운임, 保險料가 포함된 CIF가격으로 평가돼 計上된다. 貿易外收支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댓가(貿易外輸入)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한 댓가(貿易外支給)와의 차이를 말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서비스로는 運送, 保險, 旅行, 投資收益 및 기타용역 등이다.

移轉收支는 원조등과 같이 거주자와 비거주간의 모든 無償去來의 차이를 나타낸다.

資本收支는 通貨金融機關을 제외한 정부 및 민간 부문의 對外負債 增加額(외화의 유입)에서 對外資産 增加額(외화의 유출)을 차감해 산출된다.

資本收支는 장기자본수지와 단기자본수지로 구성되며 長期資本收支는 상환기간 1년이상의 자본거래, 단기자본수지는 상환기간 1년미만의 자본거래를 말한다.

오차 및 누락은 國際收支상의 모든 대외거래통계가 지나는 계상범위, 시기 및 평가상 차이로 인해 발생된다.

綜合收支는 經常收支, 資本收支, 誤差 및 漏落을 합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外換의 需給을 나타낸다.

經常收支는 한나라의 國際競爭力을 반영하는 것으로

로 간주되고 있다. 다시말해 한나라의 輸出商品과 서비스 充分한 對外競爭力을 가지면 경상수지는 黒字가 되고 반대의 경우는 赤字가 된다.

經常收支가 赤字를 보이면 이는 保有外換의 감소나 차관의 도입 등으로 보전돼야 한다. 따라서 經常收支赤字는 대외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로 연결되며 채권국이나 채무국이나 하는 것은 經常收支의 黒字가 계속되느냐 赤字가 계속되느냐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모범 국제수지 흑자국은 經常收支에서는 흑자를 資本收支에서는 해외투자, 해외자본 공여, 원조 등으로 적자를 보이는 것이 통례이다.

經濟開發 初期段階에서는 생산시설 도입이나 수출을 위한 中間財를 해외에서 들여오게 됨으로써 經常收支 赤字狀態 지속이 불가피하나 經濟開發에 나선지 30년에 접어드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의 經常收支赤字는 생산이나 수출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消費支出의 증대로 인한 성격이 강해 우리나라 경제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經濟體質이 선진국으로 성숙되지 못한 가운데 우리의 주종 수출품 가격 경쟁력마저 악화되고 사회 간접자본 부족, 생산인력난 등 經濟基盤 構造의 취약성이 노출돼 획기적인 輸出增大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經常收支, 資本收支, 誤差 및 漏落을 합한 綜合收支는 실물거래와 금융거래 상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국민 경제 전체의 外換需給狀況을 보여주는 것이다.

綜合收支는 외환의 수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市場平均換率制度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거의 바스켓 제도하에서와는 달리 그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우리경제의 對外競爭力이 약화돼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커지고 시장원리에 따라 환율의 절하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핫머니(Hot money)가 해외에서 대량유입되거나 外國業體들의 對韓투자가 갑자기 늘어나 資本收支가 黒字를 보이고 資本收支 黒字規模가 경상수지 赤字規模를 능가해 綜合收支로 黒字를 보이게 되면 원화시세가 오히려 상승하는 왜곡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綜合收支 動向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

Ⅲ. '86년~'89년 사이의 黒字原因 分析

建國이래 經常收支 黒字가 발생한 시기는 '65년과 '66년, '77년 그리고 '86년부터 '89년까지이다. '65년과 '66년 2년 동안의 經常收支 黒字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원조에 힘입은 移轉收支 項目에서의 黒字 발생에 기인한 것이다.

'65년에는 1百萬달러, '66년에는 1億달러의 經常收支 黒字가 발생했다. '77년의 經常收支 黒字發生은 국내 건설업체들이 중동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둔데 힘입어 貿易外收支 부문에서 흑자가 난데 기인한 것으로 1千2百萬달러의 經常收支 黒字가 발생했다. 이때의 經常收支 黒字도 건설이라는 서비스의 수출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무역수지 부문에서의 黒字示顯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86년부터 貿易收支 部門에서의 黒字示顯에 힘입어 '89년까지 經常收支가 흑자를 보였으며 綜合收支도 '86년부터 '89년까지 흑자를 기록했다.

'86년의 經常收支 黒字規模는 46億1千7百萬달러였으며 '87년에는 98億5千4百萬달러에 달했다. '88년에는 經常收支 黒字規模가 1百41億6千1百萬달러를 기록했으며 '89년에는 50億5千5百萬달러의 經常收支 黒字를 기록했다.

'86년부터 '89년까지 4년동안 흑자를 기록했던 經常收支도 '90년부터 輸出競爭力 弱화에 따른 貿易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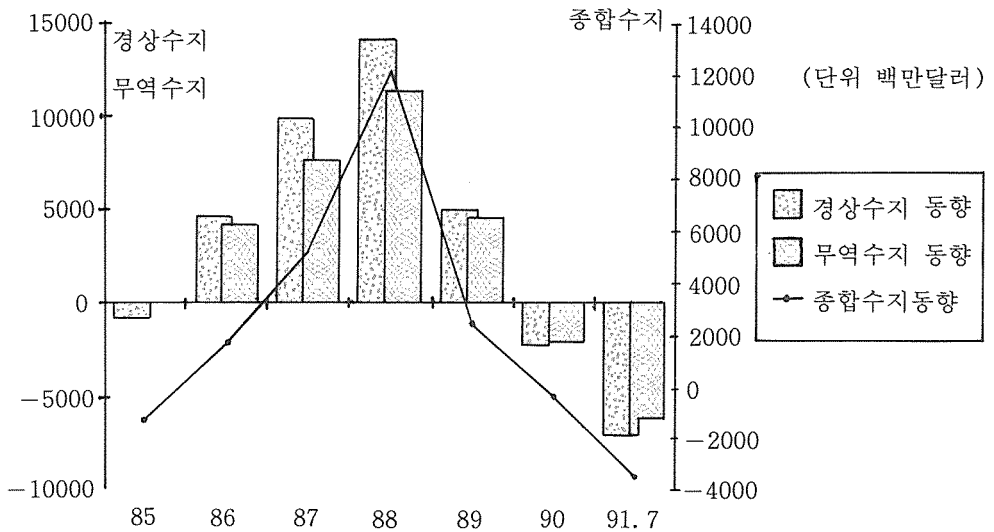
(표1) 국제수지표

항 목	포함되는 거래
1 경상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수지 • 무역외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의 수출입 용역의 수출입 운임, 보험, 여행, 투지수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수지
	이사회물, 휴대품, 원조 등
2 자본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자본수지 • 단기자본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환기간 1년 이상의 자본거래 상환기간 1년 미만의 자본거래
3 오차 및 누락	
4 종합수지(1+2+3)	

(표2) 국제수지동향

(단위: 百萬달러)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1~7
- 경상수지	-887	4,617	9,854	14,161	5,055	-2,179	-7,040
• 무역수지	-19	4,206	7,659	11,445	4,597	-2,004	-6,076
(수출)	26,442	33,913	46,244	59,648	61,409	63,124	38,778
(수입)	26,461	29,707	38,585	48,203	56,812	65,127	44,854
• 무역외수지	-1,446	-628	977	1,267	211	-451	-736
• 이전수지	578	1,039	1,218	1,448	247	275	-228
- 자본수지	513	-2,374	-5,843	-1,397	-3,302	3,882	2,449
• 장기자본수지	1,101	-1,982	-5,836	-2,733	-3,363	548	3,065
• 단기자본수지	-588	-392	-7	1,336	60	3,334	-616
- 오차 및 누락	-880	-544	1,191	-589	701	-1,976	1,136
- 종합수지	-1,255	1,700	5,202	12,175	2,453	-274	-3,445



[그림1] 국제수지표

支 惡化로 赤字로 反轉했다. '90년에는 經常收支 赤字 規模가 21億7千9百萬달러를 기록했으며 今年 들어서 는 7월말 현재 70億4千萬달러의 赤字를 기록했다.

'86년부터 시작된 經常收支 黑字가 왜 '89년까지만 지속됐으며 이후에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일까. 이는 우리나라의 産業競爭力 향상에 의

해 貿易收支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低油價, 低달러, 低金利라는 소위 3低현상이라는 外部要因에 힘입은 것이었으며 같은 이유로 3低의 소멸과 함께 黑字도 소멸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80년대의 經常收支 흑자요인을 항목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 油價下落: '86년 이후 세계 油價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힘입어 우리나라는 '85년에 비해 매년 20億달러내외의 原油導入 代金を 절감할 수 있었다. 동시에 油價下落은 세계 景氣를 부양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86년부터 '89년까지 4년간 輸出 增大에 크게 기여했다.

▲ 달러貨 약세: '85년부터 '87년까지의 기간중 美 달러貨가 기록적인 약세를 지속하는데 힘입어 우리나라 원貨는 일본 엔貨와 주요 유럽통화에 대해 크게 절하됐다.

이에따라 '86년부터 '89년까지의 기간 중 우리나라의 주력 輸出市場인 미국, 일본, EC에 대한 輸出이 크게 증가했다. '88년 이들 3개지역에 대한 수출은 4百16億달러로 '85년의 1百86億달러에 비해 2.2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89년부터 달러화 시세가 서서히 강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게 되자 이들 3개지역에 대한 輸出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90년의 이들 3개지역에 대한 總 輸出은 4百9億달러로 '88년의 4百16億달러에 비해 7億달러가 감소했다. 이들 3개지역에 대한 貿易收支도 '85년의 15億달러 黑字에서 '88년에는 黑字幅이 69億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90년에는 이들 3개지역에 대한 貿易收支가 赤字로 반전됐으며 적자규모도 30億달러나 됐다.

▲ 國際金利 下落과 올림픽 特需

國際金利 下落과 貿易收支 黑字에 따른 외채감소로 借款利子 지급이 감소했으며 올림픽 개최 전후의 여행수입 증가로 적자를 지속하던 貿易外收支가 흑자로 반전됐다. 올림픽 행사가 치루어졌던 '88년의 旅行收支는 수입이 31億1千6百萬달러인데 비해 지급은 12億5百萬달러로 19億1千1百萬달러의 黑字를 기록했다.

이 금액은 '85년의 旅行收支 黑字規模 1億7千8百萬달러에 비해 6.7배나 증가한 것이다. '87년말 국제금리를 대표하는 미국의 프라임레이트는 연 8.75%였

다. 이는 '84년말 미국의 프라임레이트 10.75%보다 무려 2%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으로 국내기업들의 外債利子 支給規模도 크게 감소했다.

(표3) 3低 現況

구 분	1984	1987
(환율) ₩/\$ (년말)	251.1	123.5
DM/\$ (")	3.148	1.582
(유가) 복합도입단가(년평균)	27.98\$/배럴	16.93
(국제금리) 미국 프라임레이트(년말)	10.75	8.75

IV. 他國과의 比較

일본, 독일, 대만 등 전통적인 經常收支 黑字國들은 대외무역 환경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黑字를 지속해오고 있다. 지난 '80년 오일쇼크 당시도 이들 3개국은 貿易收支 黑字를 지속할 수 있었다. 특히 이들은 '86년 이후 자국통화의 급격한 切上에도 불구하고 貿易收支 黑字規模를 더욱 확대해나갈 수 있었다.

이들 3개국의 貿易收支 動向을 '80년, '85년, '88년 3개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들은 우리나라가 貿易收支 赤字를 기록했다를 때('80년, '85년)도 黑字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가 貿易收支 黑字를 기록했던 '88년에는 예년보다 더욱 많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75년부터 '79년까지 5년 동안 독일, 일본은 각각 연평균 1百86億달러, 1百16億달러의 貿易收支 黑字를 각각 기록했다. 이와함께 대만은 이기간중 연평균 10億달러의 貿易收支 黑字를 기록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기간 동안 연평균 18億 달러의 貿易收支 赤字를 기록했다.

(표3)에 의하면 '80년 오일 쇼크 당시 독일, 일본, 대만은 각각 89億달러, 21億달러, 1億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44億달러의 貿易收支 赤字를 기록했다.

달러화 가치를 대폭 절하시키기로 서방 선진7개국이 합의한 소위 '플라자 합의'가 있었던 '85년에도 이들 3개국은 2百85億달러, 5百60億달러, 1百21億달러의 貿易收支 黑字를 기록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貿易收支 赤字規模를 '70년대이래 가장적은 2千달러로 좁히는데 만족해야만 했다.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대규모인 1百14億달러의 貿易收支 黑字를 기록한 '88년에 이들 3개국은 각각 7百94億달러, 9百50億달러, 1百38億달러의 貿易收支 黑字를 기록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난 '86년부터 '89년까지 경험한 經常收支, 貿易收支의 黑字는 우리나라 산업전체적인 競爭力 강화때문이 아니라 3低현상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이는 전통적인 貿易收支 黑字國들이 3低의 기회를 우리못지 않게 활용해 黑字規模를 더욱 확대시킨 데서 알 수 있다. 따라서 國際收支 改善 對策은 완전히 새로운 바탕위에서 냉정한 시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표4) 무역수지(BOP기준)추이 비교

(단위: 億달러)

구 분	'75~'79년 평균	1980	1985	1988
독 일	186	89	285	794
일 본	116	21	560	950
대 만	10	1	112	138
한 국	18	-44	-20	114

V. 國際收支 改善 對策

國際收支表는 經常收支, 資本收支, 綜合收支로 구성돼 있으며 [그림1]에서 보듯이 綜合收支는 경상수지에 비례하고 經常收支는 貿易收支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시말해 資本收支는 물론 경상수지 가운데서도 貿易外收支 및 移轉收支는 國際收支上的 대세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國際收支 改善 對策은 貿易收支 改善 對策에 초

점이 맞추어져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貿易收支 改善 對策은 곧 무역수지 악화 원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貿易收支 惡化의 원인은 ▲ 주요 生産設備의 국산화 미흡 및 주요 生産設備의 해외의존도 심화 ▲ 최종 제품이 생산될 때까지 필요한 中間財의 높은 海外依存度 ▲ 貨金의 급격한 상승, 高金利 등으로 인한 價格競爭力 약화 ▲ 수입개방 확대 추세 및 외국의 通商壓力으로 인한 수입관세율 인하와 수입자유화 품목수의 증가 ▲ 도로, 항만 등 社會間接資本 施設의 부족으로 인한 間接費用의 급증 ▲ 국민들의 消費性向 急增 ▲ 技術水準의 열위 ▲ 제조업의 인력난과 근로시간 단축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들 요인을 살펴보면 장기적인 차원의 계획, 예컨대 第7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을 세워야만 해결될 수 있는 사항, 세계 交易自由化 傾向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 우리의 한정된 부존자원, 관계상 불가피한 사항, 經濟政策을 무리하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派生된 사항등으로 나뉘볼 수 있을 것 같다. 주요 生産設備의 해외의존도 심화, 社會間接資本 施設의 부족, 技術水準의 열위 등은 장기적인 차원의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시행해야만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함께 輸入關稅率 인하 및 輸入自由化 品目數의 증가도 세계 交易自由化 傾向에 따라 불가피한 것이다. 특히 輸出을 해야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 최종 제품이 생산될 때까지 필요한 中間財의 높은 해외의존도 또한 우리 내수시장이 협소한데다 부존자원이 적다는 점에서 볼 때 해결수단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消費性向 急增, 製造業의 인력난, 貨金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價格競爭力 弱化는 분명 정부의 무리한 經濟政策에서 오는 것으로 이것만큼은 政府, 企業, 家計가 모두 합심하면 시정될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된다.

貿易收支 黑字가 발생하기 시작할 '86년부터 흑자 규모가 최고에 달했던 '88년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당시에 위에서 지적했던 貿易收支 惡化要因들이 상존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국민들의 過消費 風潮가 현재와 같이 심하지 않았으며 製造業의 인력난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적어도 당시에는 일부 고소

특층만이 자가용을 몰고다녀 고속도로가 개인 승용차의 홍수에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일은 없었으며 구로공단의 製造業體들은 야간근로학교를 개설하고 기숙사를 설치해 근로청소년들을 生産現場에 불러 모을 수 있었다.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또다시 3低의 호기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현재의 過消費 風潮, 人力難, 賃金の 급격한 上昇現象이 지속되는 한 별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貿易收支 赤字規模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過消費 風潮, 製造業의 人力難과 賃金の 급격한 上昇 그리고 이로인한 價格競爭力 弱化的 문제가 시정되고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過消費 風潮나 製造業의 人力難 등의 問題는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시말해 內需 過熱에서 오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힘들고 귀찮은 일 기피풍조’라는 신조어가 나올만큼 우리의 내수가 과열됐던 것은 과연 어디에서 기인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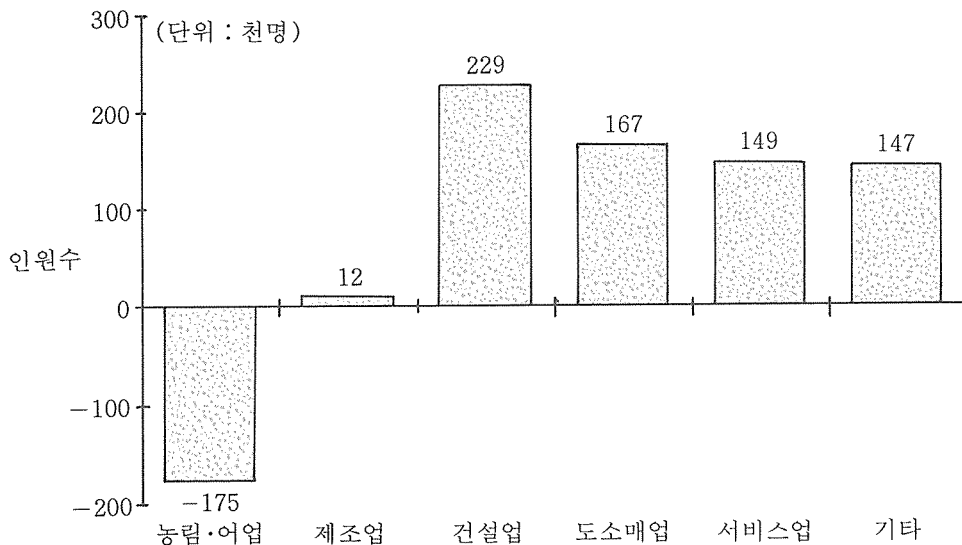
‘아무리 좋은 조건의 수출 주문을 받아와도 소화해 낼 공장이 없어 소용없다’ 라는 푸념이 나올 정도로 人力難이 심각한 것은 왜 그럴까? 이러한 현상의 원

인을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政府가 정치적인 동기에서 결정한 2百萬호 정책이 그 주범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건설부문에 투입된 돈이 30兆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같은 돈의 편중은 시중의 高金利 및 資金難을 초래하고 있다한다.

統計廳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금년 8월말 현재 국내 취업자 총인원은 1千9百1萬6千명이다. 이 중 農林漁業部門의 취업자수는 3百46萬4千명, 製造業部門의 취업자수는 4百88萬名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建設業部門에는 1百62萬4千名, 도소매업부문은 4百8萬6千名, 서비스업부문에는 2百79萬9千名이 각각 취업하고 있으며 기타부문에는 2百9萬3千명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각부문의 취업자수 절대규모보다 전년동기와 비교한 부문별 인력의 증감이 더 중요하다. 人力이 어떤부문으로 이동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農林漁業部門은 전년동기대비 17萬5千명이 감소했으며 建設業은 22萬9千명이나 증가했다. 이와함께 도소매업은 16萬7千名, 서비스업은 14萬9千名 기타부문은 14萬7千명이 각각 증가한 반면 輸出의 주역인 製造業은 겨우 1萬2千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그림2〕



〔그림2〕 금년 8월말 현재 전년동월대비 부문별 취업인원 증감현황

결국 절대적인 雇傭規模 측면에서 볼 때 製造業이 農林漁業, 建設業, 都小賣業, 서비스업 등보다 앞서지만 인력이동은 製造業 쪽에 불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非製造業部門, 그중에서도 建設業部分으로의 인력의 이동은 왜 일어났을까? 人力의 移動은 상당히 많은 마찰이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취업인구가 거의 30萬名이나 늘어나게 된데에는 제조업에서의 단위시간당 報酬에 비해 파격적인 조건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建設業體들의 採算性은 製造業體들의 그것에 비해 월등히 높아 제조업체들 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建設部門으로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수출의 주역인 제조업에서는 인력난이 빚어졌으며 需要와 供給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市場原理에 의거, 임금이 크게 상승할 수 밖에 없었다. 賃金의 급상승은 우리제품의 價格競爭力을 약화시킨 반면 건설경기의 호황은 시멘트, 타일, 가구 등 內需用 物品의

수입을 촉진시켰으며 人力難을 극복하려는 제조업체들의 外産 自動設備의 수입 붐까지 야기시켜 무역수지 적자폭을 더욱 넓혔다.

이상은 2百萬호 建設政策이 어떻게 貿易收支 赤字規模를 확대시켰는가에 대한 설명이었다. 정부의 2百萬호 建設政策은 당초 전월세 가격 및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자는 좋은 목적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88년 1월부터 '92년 12월까지 60개월동안 2百萬호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추진됨에 따라 內需過熱을 초래했으며 貿易赤字幅을 확대시켰다는 점은 異論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政府는 지금까지의 建設政策을 전면 再檢討하고 建設이 아닌 수출을 해야만 돈을 벌수 있는 金融, 租稅政策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우리 사회의 可用資源이 수출산업에 집중돼 현재의 난국도 타개할 수 있는 것이다.